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산업간호사의 역할

최 영 희 여성단체협의회장

서론

최근에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나 성폭력 등 성 관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향락적 퇴폐적 성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 국한된 자료이긴 하나 1996년 한해 동안 여성의 37.2%가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 그리고 남성의 31.0%가 성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전통적으로 뿌리깊게 내려온 성 차별적인 이중적 성문화와 여성의 성을 쉽게 비하시키는 남성 주도적, 남성 우월주의적 성 의식 및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 차별적인 규범 및 성 윤리를 평등한 차원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정립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병원내 환경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채 사회생활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인 여성·남성 근로자들을 직접 접하는 산업간호사들은 이러한 현 사회에서의 성문화의 문제점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성문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한국사회의 성문화

(1) 유교적 성문화

한국사회를 지지해온 전통적 사상은 유교이다. 조선시대를 지배하였던 유교는, 성의 생식적 기능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성은 혈통의 순수성과 가문의 승계를 위한 방편이었을 때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양반층에서 여성의 성은 자식을 낳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억압되었다. 이러한 성 의식은 성을 은밀한 영역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현대 산업사회인 오늘날까지도 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성을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개인의 체험과 문제를 말하는 것을 꺼린다.

성을 금기시 하는 유교적 성문화는 공식적인 교육현장에서도 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와 선생들은 아이들을 성에 대한 무관심과 모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적부터 성에 대해 배타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성적인 호기심이 유

발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성적 흥미를 갖는 극단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2) 가부장제 성문화

인간사회에서 성(sexuality)은 동물세계처럼 생리적인 본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인류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모든 본능적인 욕구나 충동은 일정한 규제를 가해졌으며,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성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를 가해왔다. 그것이 결혼이다. 결혼제도는 성생활의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인류 문명사회는 남녀간의 성생활을 한 쌍의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성 규제를 최대한 강화한 것이다. 가부장제도는 인간의 성을 최대한으로 지배하고 규제해온 인류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사회제도이며, 인류 문명사회는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결혼과 가족제도를 이끌어왔다. 즉, 부계와 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 오늘날까지 인류사회를 지배해 왔다.

부계와 부권을 토대로 한 가족관계는 곧 가정에서의 남녀간의 지위가 평등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이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게 한다.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한다. 여성이 정절을 지키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남성의 성적 소유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성적 복종은 결혼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 관계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가부장제에서의 성문화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남녀간의 성적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가부장제 성문화는 남녀간의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성 규제와 성 규범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성문화는 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성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한국에서의 가부장적인 전통은 성의 이중윤리와 이중규범, 그리고 여성비하의 관념이 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조선시대의 성생활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 성의 이중규범이 아직도 강하여 남녀간의 성생활과 성 관념의 차이가 심하고, 남성의 외도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등, 가부장적 속성의 성문화의 본질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성문화는 새로운 성격과 양상으로 변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서유럽의 성 자유화 물결이 도입되고 성을 상품화하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성 풍습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발달이래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함께 겪는 변화이지만, 잔존하는 유교적 성문화와 이 새로운 변화는 특수한 한국적 성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2. 현사회의 성문화 양상

(1) 성 개방과 자유화

현대사회에 이르러 세계화 추세와 함께 성문화에 있어서도 서구사회의 성 개방과 자유화 풍조가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성 개방과 자유화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과거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개인의 욕구를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서구의 저급한 성문화가 같이 유입되면서 성 개방과 자유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전체로 부각시키면서 성문란과 방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서구의 성문화가 한국사회의 전통적 성문화와 맞물리면서 혼란과 아노미적 성문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지 못한 젊은이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양식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전통적인 성 윤리나 성 관념 때문에 서구의 성 개방, 자유화의 물결은 도리어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혼전 성 경험이 결혼의 파탄을 야기하거나 미혼모의 문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미혼부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성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서구의 성 개방, 자유화의 성문화는 여성에게 성적 자유화를 주었다기 보다 도리어 전통적인 이중적 성 윤리와 여성차별을 전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향락문화의 범람

오늘날 각종 성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성은 공공연한 대중의 소비와 여가의 대상으로써 일상생활속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문화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향락사업의 급격한 팽창은 한국의 성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각종 유흥업소들이 주택가, 학교, 상가,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접객업소들은 변태 영업을 하며 향락 업소화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성 상품이 각종 서비스업의 주요품목이 되어갔다. 계층과 연령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쉽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특유의 접대문화, 기생관광사업의 육성,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과도한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적인 성 쾌락주의의 확산 등은 유흥업소의 수요자를 늘리는 요소들이다. 현재 남성들은 향락업소를 사업상 또는 여가와 오락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만큼 향락문화는 일부 특정집단의 하위문화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성문화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업적인 성에 길들여지는 남성들이 늘어날수록 성문화는 더욱 타락된 양상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 부도덕한 상업주의의 조작과 횡포에 의한 쾌락적 성의 대중화를 통해 여성의 성과 육체를 여가와 오락을 위한 소비상품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여성의 비인간화와 성적노예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요즈음에는 각종 환각성 약물의 확산 또한 향락문화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성범죄를 부추키는 요인이 된다.

(3) 대중매체의 상업성

한국에 있어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시장논리가 문화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문화의 저속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에서의 성의 상품화는 곧 여성의 인격을 비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향락문화를 조장시키며 청소년들을 올바르고 건전한 성 윤리 함양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을 해친다는 측면에서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 중에서도 방송은 공익매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사회를 건전한 환경으로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TV의 드라마, 광고, 쇼 등에서는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성의노출, 암시적 성 묘사 등이 심하며 성 도구화의 여성의 상품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을 수동적, 열등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치와 남녀윤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음란비디오, 컴퓨터 게임, 컴퓨터 통신, 전자오락게임, 포르노 잡지, 만화, 주간 및 월간잡지, 스포츠신문, 영화 등도 일반 대중의 정서를 해치며 성 충동을 자극하고 성범죄를 부추키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는 폭력성, 향락성과 함께 여성을 상품화하며 여성차별의식을 제공하여 성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

3. 성문화환경 개선방안과 산업간호사의 역할

(1) 건전한 성문화 개념의 확립

일반 대중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성문화, 더 나아가서는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처럼 사회를 이끌어가는 성인들의 성 의식이 건전해야 밝은 미래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쾌락주의, 성의 상품화, 향락퇴폐업소를 번창하게 한 책임은 탈선청소년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기성세대이므로 건전한 성문화 개념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성과 생명은 동일하게 귀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성은 쾌락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인권이고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끼는 일이 민주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성 관계가 도덕과 규범의 시민사회를 창출하는 요건이며 이를 해치는 성범죄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패륜행위임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행해야할 모두의 책임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특히 산업장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일차적 서비스 목적이 있는 산업간호사는 먼저 성문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스스로에게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산업장 근로자들이 올바른 성문화 개념을 확립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2) 성교육을 통한 의식수준의 향상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관한 생리나 위생만이 아니고 성인격의 기초를 확립하고 올바른태도를 가르치며 나아가서 진실한 애정을 익혀 행복한 가정생활을 준비시키는 교육이다.

성 윤리 교육에서는 성에 대한 편견, 이중적 성 윤리의식이 타파되어야 한다. 남성의 성 충동은 허용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규범의 정체를 밝히고 건전한 성문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성교육에는 반드시 남녀평등, 인간존중, 성 윤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분야에서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각 개인은 평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또 성장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현실생활과의 연계가 강조되어 모두가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직장, 학부모, 교사, 군대, 경찰 등의 교육, 연수와 각 사회교육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시키고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다면 왜곡된 성 의식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간호사는 이와 연계하여 산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보건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성 상담 및 성교육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성 상담을 시행하며,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성교육을 실시하며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건전한 성문화환경 조성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사회계몽과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벌이는 시민운동이 우선 해야 하며 당국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현실적으로 힘들지라도 각 분야의 중지를 모아 실질적 운동을 벌여야 한다. 문화의 변혁이 정책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막연한 논의는 의미가 없으므로 시민의 참여와 정책의 지원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한 사회적 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대중매체 중 각종 성인만화, 도색잡지, 광고, 신문 등 인쇄매체에 실린 기사. 사진, 문구 중에 성에 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TV, 음란비디오, 성인만화, 음란 PC등 매체에 나타난 여성상의 내용도 감시하며 대중매체종사자들의 자각을 촉구하도록 모니터보고서, 항의문 등을 통해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한다.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YMCA등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활동을 하고 있으나 범위의 확대와 운동의 확산이 요청된다. 따라서 산업간호사는 이들 단체와 연계하여 건전한 성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

문화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다. 하루아침에 문화가 뒤바뀌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전적으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적인 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운동도 지배적인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성문화의 정착은 곧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 의식의 개선과 건전한 성문화 환경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성 의식 교육

계몽과 더불어 시민운동의 확산이 우선 되어야 하고 동시에 성 충동을 부추기는 향락문화, 대중매체문화의 법적, 사회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간호계는 스스로가 올바른 성 의식을 정립하고 성교육 및 성 상담을 산업장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며 성문화 개선을 위해 각종 단체들과 연계하여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간호의 역할 확대 및 증대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영주(1998), 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대한간호 제 37권 제 3호, p17-26.

이경자 외(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영자(1991),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 제31호, 한국여성개발원

이영자 외(1992),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성, 한국성폭력상담소.

정화순(1995), 열린 성문화를 위하여, 한국논단, 제 68호.

진기남 외(1997), 성인의 성의식 및 성선호도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최영애(1996), 성문화의 한국적 현상을 진단한다, 학교경영, 11월호, 학교교육 생산성 연구소 교육연구사.

최인섭 외(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재락(1996), 현대 성문화의 허구와 실재, 기독교 사상, 5월호, 대한기독교서회.